

# 시낭송·리마인드 웨딩 등 할머니들의 이야기 영화로

정경희 감독 다큐 '정하게 이빠네' 눈길  
김민희 패션 '들풀' 할머니들 일상 담아  
다음달 16일 '오월 시네마' 통해 상영  
"청년들에 없는 공동체 배려 정신 있어"



리마인드 웨딩, 시낭송 등 동네 할머니들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 '정하게 이빠네'가 오는 5월 '오월 시네마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은 영화 속 주인공 할머니들의 모습.

광주시 북구 풍향동에 위치한 '김민희 패션'. 이곳은 동네 할머니 10여명이 함께 모여 영화도 포시도 읽는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김민희 패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희씨는 할머니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는 문화기획자 같은 존재다.

고향인 대구를 떠나와 광주에서 약 20년간의 일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자신만의 솜씨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할머니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진행하고, 시를 함께 읽으며 지나는 삶을 나누는 모임 '들풀'을 결성해 모임을 이끌어간다. 또 영화도 임도 열어 최근에는 할머니들과 '수상한 그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할머니들의 유쾌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정경희(여·29) 감독의 '정하게 이빠네'가 그것. 약 27분동안 펼쳐지는 영화는 최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광주브랜드영화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에 들어간 작품이다.

서울에서 필름메이커, 다큐멘터리스트로 활동중인 정 감독은 "같이 일하는 동료인 김수현씨 덕분에 광주를 알게 돼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며 "김민희씨 딸이자 영화에도 출연하는 수현씨를 통해 할머니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문화를 접했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5·18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정경희 감독

내용의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3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80년 5월 이야기를 풀어 내기가 쉽지 않아 할머니들의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모습만을 담아냈다.

영화에는 강영자, 이순자, 박명자 할머니 등 약 20여 명이 출연하며 촬영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7개월 간 진행됐다.

"할머니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살롱문화와 유사하

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들은 오래 전부터 그러한 문화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들풀' 활동을 통해서도 공감하며 연대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수도 때며 모습이 요즘 젊은이들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영화 제목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내레이션 "정하게도 이쁜 우리의 순간들은 오늘도 차곡차곡 쌓여간다"에서 따왔다.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할머니들이 예쁘다는 의미와 등장인물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고 추억을 쌓아가는 순간들이 아름답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

영화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 바로 김민희 패션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부분이다. 정 감독이 특히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한 이 장면들은 음식을 나눠먹는 일상을 통해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정 감독은 "영화 속에서 할머니들은 떡도 나눠먹고 김치도 나눠먹고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며 "그저 음식을 나누는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이와 함께 할머니들의 다양한 활동을 관객들이 보면서 에너지와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

고 이야기한다. "TV외에는 즐길거리가 없는 노년의 삶이 무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이러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들한테는 요즘 청년들에게 없는 공동체의 배려와 보살핌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러한 연대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영화는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월 시네마 프로젝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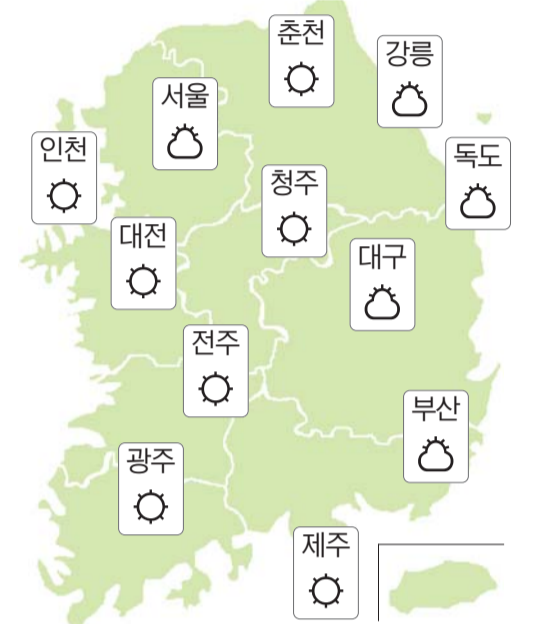
해돋이	05:46	달뜨기	08:24
해지기	19:15	달지기	23:11

### 맑음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7/19	보성	맑음	4/19
목포	맑음	8/16	순천	맑음	8/21
여수	맑음	9/19	영광	맑음	4/17
나주	맑음	2/19	진도	맑음	7/17
완도	맑음	8/20	전주	맑음	5/19
구례	맑음	4/21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6/19	남원	맑음	2/19
해남	맑음	5/18	흑산도	맑음	9/16
장성	맑음	3/19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52	04:45
여수	21:53	16:41
	05:17	11:17
	17:19	23:55

###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 주간 날씨

28(화)	29(수)	30(목)
6/21	8/23	10/25
5/1(금)	2(토)	3(일)
14/26	14/25	14/25



## 전남복지공동체, 코로나 19 극복 기부활동 '일석이조'

성금모아 물품 구입 소상공인 등 도와

전남복지공동체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활동을 벌였다.

26일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신현숙)에 따르면 재단은 전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 전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행식)와 공동으로 지역 영세상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힘내라! 소상공인' 캠페인을 진행, 모두 1630만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했다.

전남복지공동체는 임직원 성금을 모아 전통시장에서 식료·생활품을 구매해 뒤 개학 연기와 경로당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그룹홈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전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남아동복지협회, 전남노인복지협회, 전남사회복지관협회,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합회, 전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11개 지역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감염병으로 고통 받은 이웃을 살려야 할 때"라며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 지역공동체를 보살피는데 우리 재단과 전남복지공동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수 콤파트몰 상권활성화 위해 손잡다

SK서부마케팅본부-청년회 상생협약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현국)와 여수 콤파트몰 청년상인회(회장 방준용)가 여수시 지원을 받아 최근 '콤파트몰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은 SK텔레콤이 가진 ICT기술과 청년상인회 아이디어를 접목, 콤파트몰 환경을 개선하고 멤버십 제휴 등을 추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 멤버십 고객에게 콤파트몰 제휴업체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SKT멤버십 앱에서 쿠폰을 받아 계산할 때 제시하면 된다.

AR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콤파트몰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호남-제주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장 컨설팅, 매장 운영 플랫폼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28개 SK텔레콤 부스트파크에서 로컬 업체와 제휴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서부 본부에도 광주 상무지구, 목포 근대문화거리, 여수 낭만거리, 전주 한옥마을, 제주시청상권 5곳에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음 4월 5일 庚子)

☎ 010-9790-8237

36년생 미세하였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48년생 직 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60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7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84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렴하라. 96년생 기적처럼 일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44, 60

37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만 한다. 49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해 낸다. 61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 벌일 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73년생 옛것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 있다. 85년생 통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터지리라. 97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21, 86

38년생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50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2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74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86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의외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98년생 수효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63, 82

39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잘 살펴보아라. 51년생 재물이 훨씬 좋아지고 있으니 진력해 보자. 63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7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87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잠시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99년생 점면적으로 나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1, 50

40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64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76년생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88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00년생 지난간 것은 차지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25, 92

41년생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행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어울린다면 목표점에 다가서게 된다. 77년생 성과를 확실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89년생 정리되어야 확실한 선택이 가능하다. 01년생 독창성을 상실한다면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03, 71

42년생 어슬픈게 행하려거든 아니함만 못 하느니라. 54년생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대체로 해소 되지만 부분적인 결핍은 여전히겠다. 7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90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02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6, 59

31년생 구색을 다 맞추자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43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55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67년생 고단 하더라도 꼭 참고 한결같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행운이 따른다. 79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히 잡아라. 91년생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행운의 숫자 : 48, 54

32년생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44년생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라. 56년생 누적 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68년생 자발적이려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80년생 완성도를 높여야만 할 때다. 92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93

33년생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45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57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69년생 현실적이어야 한다. 81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93년생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허하다. 행운의 숫자 : 30, 51

34년생 여태까지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46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주 접하다보면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58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접이 될 수 있다. 70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82년생 그곳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94년생 복잡다단한 관계가 계속 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3, 75

35년생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47년생 여명처럼,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오고 있으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라. 59년생 부분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71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알고 있다. 83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95년생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패념치 마라. 행운의 숫자 : 39, 67